

# 광산업·SI·문화전당 현안 해결 '기대감'

## 민주당 상임위 배정

양향자·김원이·서동용 예결위  
서삼석·이개호 등 5명 농해수위  
행안위 이형석·문광위 이병훈  
군 공항 이전 등 현안 담보  
국방위 배정 위원 없어 아쉬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	행정안전	문화체육	농림해양	산업통상	보건복지	국토교통	예산결산	정보위
김희재 이용빈	소병철	민형배	양향자	윤영덕 서동용	이용빈	이형석	이병훈	김승남 서삼석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송갑석 신정훈	김원이	조오섭 김희재	김원이 양향자 서동용	이개호

광산업과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산자위와 아시아문화전당 시즌 2 준비를 위한 문체위에 지역 의원이 배정됐지만 군 공항 이전 등 국방 현안이 많은 광주 현안을 감안할 때, 국방위에 지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아쉬운 지적이다.

전남에서는 재선의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농도 전남의 발전을 이끌게 될 농해수위 간사를 맡은 것을 비롯해 이개호(담양함평영광광성)·주철현(여수갑)·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 등 5명이 농해수위에 배정됐

다. 10명의 전남 국회의원의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농해수위에 배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 배정에 있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이뤄지지 않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산자위에는 신정훈(나주화순) 의원, 국토위 김희재(여수) 의원, 법사위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 보건복지위 김원이(목포) 의원, 교육위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겸임 상임위원 국회 운영위원회는 원내부

대표인 이용빈·김희재 의원이, 정보위에는 이개호 의원이 포진했다.

한편, 민주당 상임위 간사에는 운영위 김영진 의원, 법사위 백재현 의원, 정무위 김병욱 의원, 기재위 고용진 의원, 교육위 박찬대 의원, 과방위 조승래 의원, 외통위 김영호 의원, 국방위 황희 의원, 행안위 한병도 의원, 문체위 박정 의원, 복지위 김성주 의원, 환노위 안호영, 국토위 조승현 의원, 정보위 김병기 의원, 여가위 권인숙 의원, 예결위 박홍근 의원 등이 내정됐다.

임동욱 선임기자·오광록 기자 kroh@

# '이재명 운명'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단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18일 첫 심리

## 당선 무효형 '관심'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 내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에서도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되면 선고는 두세 달 이상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한다. 그러나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통상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심리는 충분히 하되 선고까지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측이 낸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 하게 된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현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면주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안 대표와 대화할 것이냐고 묻자 "대화할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화를 하려면 주제가 있어야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당은) 의석 셋밖에 없는데..."라며 "(안 대표 측과) 전혀 연락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와의 회동이 급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반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 받는다.

당정청은 질병관리청 기능 확대에 맞춰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청은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관련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 정치권 대북특사론 확산

민주 "대화로 위기 막아야"...안철수·윤상현 "야권 인사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대북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다"며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설 최고위원은 "정부가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면서 위기가 증폭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특사로 파견됐던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이 있지만, 방호복을 입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회담을 성사시키고 6·15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박 부이사장은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2000년 당시 대북특사로서 싱가포르에서 송호경 대북특사를 만난 일을 회고하며 "(특사 간) 4차례 비밀접촉을 통해 6·15 공동선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권도 특사파견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엄중한 남북관계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부의 조치를 촉구한다"며 "저도 정부가 요청하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문제에 정통한 보수 야권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보수 야권 인사를 특사로 보내면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영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협상 성공을 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 김종인 "안, 의석 셋뿐이라"

안철수와 회동 확답 회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회동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안 대표와 대화할 것이냐고 묻자 "대화할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화를 하려면 주제가 있어야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당은) 의석 셋밖에 없는데..."라며 "(안 대표 측과) 전혀 연락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와의 회동이 급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풍수·시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6. 23(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신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시주 15만원(매월)

###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6.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선착순00명)

##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 : 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인적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